

하늘이 낳은 아이들

- * 글 : 조연화
- * 그림 : 황여진
- * 펴낸곳 : 단비어린이
- * 정가 : 12,000원
- * 분량 : 176쪽
- * 대상 : 초등 중학년

·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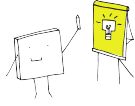
“기억하거라. 양반이든 천민이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귀히 쓰일 때가 있어서 하늘이 낳은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자신들의 마을에서만 갇혀 지내야 했던 백정의 아이들. 한자는 물론이요 흔한 언문도 배우지 못해 세상과 소통할 수 없었던 아이들에게, 어느 날 거짓말처럼 인상 좋은 선비 한 명이 나타납니다. 모함을 받아 한양에서 멀고 먼 전라남도 끝 마로현으로 유배를 온 강 대감은 밝고 천진한 이 아이들과 곧 친구가 되지요.

백정의 삶과 아픔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강 대감은 아이들만큼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길 바랐고, 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백정에게 글을 가르쳐 역모를 도모한다’는 혐의로 갇히고 말지요. 강 대감과 아이들은, 그리고 백정 마을 사람들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 주요 독후활동

하늘이 낳은 아이들	책 속으로	· 장 제목 짓기 · 조선 시대의 신분 제도 · 소설 속의 소설 이야기 · 언문과 한문
	토론&논술	· 불휘의 선택에 대한 나의 생각은?
	창의융합	· 세상을 바꾸는 글 · 뒷이야기 상상하기



독서 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하늘이 낳은 아이들』의 책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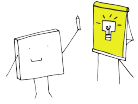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2. 『하늘이 낳은 아이들』 뒤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기억하거라. 양반이든 천민이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귀히 쓰일 때가 있어서 하늘이 낳은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자신들의 마을에서만 갇혀 지내야 했던 백정의 아이들, 한자는 물론이요 흔한 언문도 배우지 못해 세상과 소통할 수 없었던 아이들에게, 어느 날 거짓말처럼 인상 좋은 선비 한 명이 나타납니다. 모함을 받아 한양에서 멀고 먼 전라남도 끝 마로현으로 유배를 온 강 대감은 밝고 천진한 이 아이들과 곧 친구가 되지요.

백정의 삶과 아픔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강대감은 아이들만큼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길 바랐고, 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백정에게 글을 가르쳐 역모를 도모한다’는 혐의로 갇히고 말지요. 강대감과 아이들은, 그리고 백정마을 사람들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 1) 『하늘이 낳은 아이들』에 나오는 아이들은 왜 한자와 언문을 배우지 못했을까요?
- 2) 강 대감 어떻게 전라남도 끝 마로현으로 오게 되었나요?
- 3) 강 대감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상해서 써 보세요.



독서 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차례, 머리말

-책의 차례를 살펴보고, 내용을 짐작해 봅니다.

1. 차례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차례>

- | | |
|------------------|----------------------|
| 1. 마로현에 온 강 대감 | 7. 멍석서당이 열렸다 |
| 2. 모두가 속였어 | 8. 불휘의 은밀한 공부 |
| 3. 뽕릴리리, 원님 행차시다 | 9. 이들도 백성이다! |
| 4. 강 대감을 만난 아이들 | 10.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
| 5. 느티나무 아래에서 | 11. 금부도사가 오두막에 |
| 6. 새로운 삶으로 가는 길 | 12. 이별, 그리고 또 다른 시작 |
| | 13. 하늘이 낳은 아이들 |

1) 차례만 읽고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2) 각 챕터(장) 중에서 가장 흥미를 끄는 제목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9. 이들도 백성이다!'에서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예상해서 써 보세요.

2. 작가의 말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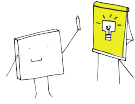
<작가의 말>

마로현은 광양시의 옛 이름이에요. 제 마음은 이 재미난 이야기에 사로잡혔지요. 수많은 호기심이 꼬리를 물면서 가슴이 쿵닥쿵닥 뛰기 시작했어요. 이 동화는 짧은 광양숯불고기 설화에 저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더하고, 많은 역사 자료를 찾아가며 탄생한 동화입니다. 신분제도는 사라졌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아픔을 주고 있는 '격차', '차별' 대신, 강 대감처럼 모두를 이해하고 돕고 싶은 마음으로 더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를 꿈꿉니다.

마로현에서 조연화

1) '소재'는 글의 내용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작가는 『하늘이 낳은 아이들』의 소재를 어디에서 찾았나요?

2) '설화'는 각 민족 사이에 전승되어 오는 신화, 전설, 민담 따위를 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설화를 찾아보고, 소개해 주세요.



독서 중 책 속으로_ ① 장 제목 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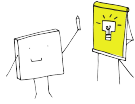
1. 각 장에는 그 장을 잘 나타낼 수 있게 제목을 짓습니다. 또 각 장을 읽고 싶게 만들 수 있도록 재미있거나, 궁금증을 자아내게 짓기도 하지요. 『하늘이 낳은 아이들』을 읽으며 장 제목을 다시 붙여보세요.

장 제목	내가 붙인 제목	장 제목	내가 붙인 제목
1. 마로현에 온 강 대감		8. 불휘의 은밀한 공부	
2. 모두가 속였어		9. 이들도 백성이다!	
3. 뽕릴리리, 원님 행차시다		10.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4. 강대감을 만난 아이들		11. 금부도사가 오두막에	
5. 느티나무 아래에서		12. 이별, 그리고 또 다른 시작	
6. 새로운 삶으로 가는 길		13. 하늘이 낳은 아이들	
7. 멍석서당이 열렸다			

2. 장 제목을 지은 뒤에, 나만의 책 제목을 지어 보세요.

책 제목	내가 지은 제목
하늘이 낳은 아이들	

3. 새로 지은 표지의 제목과 표지의 그림이 어울리나요? 내가 생각한 표지의 제목을 넣고, 표지 그림을 그려 보세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조선 시대의 신분 제도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남루한 차림의 불휘 어머니가 울며 소리쳤다. 포졸들이 불휘 어머니의 팔을 잡아끌었지만, 강렬히 저항하며 이방에게 나아가려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는 소리에 묻혀 불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들을 수 없었으나, 강대감은 필시 큰 사연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누구나? 좌의정을 뵙고 오느라 길이 늦어져 한시도 쉬지 못한 행군에 피곤하건만, 감히 누가 내 길을 방해하느냐?”

현감이 이방에게 물었다.

“처, 천한 백정이옵니다.”

이방의 대답에 현감은 한쪽 눈썹을 치켜올렸다.

“무어라? 백정 따위가! 베어라!”

(나) 강대감은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역시나 납작한 지붕의 보잘것없는 오막살이들만 즐비한 마을이었다.

막순이는 겨울인데도 속바지 위로 올라오는 짝막한 검정 치마를 입고 있었다. 이따금 지나다니는 사내들은 갓 대신 땃개비로 엮어 만든 패랭이를 쓰고 있었다.

그곳은 천민 중의 천민 백정들의 마을이었던 것이다.

(다) 떡달이가 진저리를 쳤다. 얼마 전 떡달이 어머니가 저자에 갔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다. 사람도 아닌 천한 것이 감히 저자에 나왔다면 사람들이 때리고 쫓아냈다.

“정말 너무해요. 사람이 아니라서 아무것도 못 산대요. 우린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자기 밥그릇은 갖고 태어나는 거라고 걱정 말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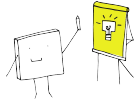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쌍구가 자신을 달래듯 말했다.

“그건 최소한 평민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잖아! 백정마을 밖으로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리 억울해도 그냥 당해야 하고, 죽어서도, 죽어서도 상여도 못 타는 백정에게 밥그릇이 어디 있냐고!”

1. (가)~(다)를 읽고, 조선 시대에 백정들에게 어떤 차별을 했는지 정리해 보세요.

2. 조선 시대의 신분을 정리해 놓은 표를 보고, 빈칸을 채워 주세요.

신분	하는 일	이 신분을 가진 사람은 누가 있을까?(본문에서 찾아서 써 주세요.)
	관리가 되어 나라일에 참여할 수 있었음.	
중인	양반을 도와 관청에서 일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였음.	
상민(평민)	농업, 어업, 수공업, 상업 등에 종사하였으며, 군역을 지고 세금을 냈음.	저자에서 떡달이 어머니를 내쫓은 사람들
	최하층 신분으로 노비, 백정 등이 포함됨.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소설 속의 소설 이야기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서자 길동 이야기다.”

“그게 누구데요? 서잔데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래서 장군이 됐어요?”

막순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강 대감은 막순이를 쓰다듬었다.

“너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당연하죠.”

셋은 눈을 끔뻑이며 강 대감을 바라보았다.

“서자인 홍길동이는 아버지를 대감마님이라 불러야 했던 슬픈 사람이야. 모두에게 무시당했지.”

(중략)

“들어보렴. 길동인 그냥 평범한 서자로 살지 않았어. 위대한 영웅이 되었지. 가난한 백성들을 괴롭힌 양반들을 혼내 주고, 약한 백성들을 도우며 전국을 휩쓴 의적 중의 의적이 된 거야.

“와아!”

“홍길동은 양반도 서자도, 천민도 없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단다. 왕이 되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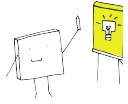
(나) 덕쇠도 강 대감에게 구해 온 책을 내밀었다. 제목은 <임길순전>이었다. 길순은 어려서부터 바느질보다 활을 쏘며 말을 달리는 것을 좋아했다. 오랑캐가 쳐들어와 큰 전쟁이 나고 적의 세력이 점점 커져 길순이 사는 마을을 향해 오자, 길순은 남장을 하고서 전쟁터로 향한다. 연로한 부모가 살고 있는 자신의 고을을 지켜내고, 나라를 구하려는 마음에서였다. 그는 전쟁에서 큰 공덕을 세워 한낱 병사에서 시작해 점점 더 높은 대장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된다. 전쟁을 앞장서서 승리로 이끌 때는 장군이 되었다. 하지만 끝내 여인임을 밝히지 못한 채, 전쟁이 끝나자 장군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었다. 길순은 평생 부모를 모시고 마을 사람들을 지켜 주며 지냈다.

1. 윗글에서 <홍길동전>의 길동과 <임길순전>의 길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어 보세요.

㉠ 공통점

㉡ 차이점

2. <임길순전>은 누가 쓴 글인가요? 이 글의 작가는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④ 언문과 한문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다른 글자도 알고 싶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소리 내어 말하지 못한 불휘는 그 말을 쓰고는 고개를 숙였다. 가슴속에서 숨이 멎을 듯 심장이 쿵쿵 울려왔다.

(나) “초저녁에 관가에서 서당을 조사하러 나왔었어요.”

불휘가 다급한 소리로 속삭였다. 강 대감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얼른 불휘를 들이고 방문을 닫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상치 못한 말에 강 대감은 놀랐다.

“저자에서 누군가 막순이를 보고 신고한 것 같아요. 백정들이 감히 글공부를 한다고.”

“무어라? 백정이 글을 배우면 왜 아니 된다는 것이냐? 신고라니, 자신들만 알아야겠다는 것이야?”

강 대감은 화를 냈다.

“이 백성들이 오래전의 그 양반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자신들만 글을 알아 더 쉽게 지배하려고 왕이 백성들에게 □□을 선포하는 걸 반대했던 양반들 말이다!”

(다) “자, 이것이 저 계집아이가 저자에 들고 왔던 것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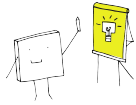
현감이 강 대감 얼굴에 나뭇조각을 들이댔다. 나뭇조각에는 선명하게 藿(곽: 미역을 뜻함)이라고 써어 있었다.

“이것이 □□이더냐? 하하하하.”

현감이 고개를 젓히며 웃었다.

“□□을 가르치는 척하고, 뒤로 천자문을 가르치지 않았더냐?”

1. (가)에서 말한 ‘다른 글자’는 무엇인가요?
2. (나)와 (다)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요?
3. 조선 시대에는 왜 양반이 쓰는 글과 백성이 쓰는 글이 따로 있었을까요?
4. 양반에게 차별을 당하는 평민들은 똑같이 백정들을 차별하고, 저자에서 글자를 들고 온 막순이를 고발합니다. 자신들도 차별당하는 아픔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 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걸까요? 막순이를 고발한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독서 후 토론&논술_ 불휘의 선택에 대한 나의 생각은?

※ 불휘는 장 대감의 양자로 들어가 벼슬을 합니다. 불휘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래 글을 읽고,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적어보세요.

강 대감은 진지하게 불휘, 그리고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불휘 아버지에게 비단 옷도 전했다. 평생 상투도 틀어 본 적 없는 불휘 아버지에게 갓까지 전해 주고, 도령의 옷도 전해주었다. 강 대감이 돌아간 뒤에도 불휘네 등잔불은 꺼지지 않았다.

불휘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내 아들, 울지 말아라. 하늘이 준 기회다. 나는 이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한 아버지도 불휘를 안고 함께 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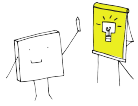
“참말이다. 나는 우리 아들이 그리 좋아하는 그을 읽고, 타고난 좋은 머리를 활용하고, 그게 내 제일 큰 소원이다. 엄마도 그럴 게야.”(중략)

양자 삼는 아이가 강 대감의 친척은커녕 백정 아이라는 게 외부에 알려지면, 모든 게 어긋나고 상황은 위험해질 것이었다. 강 대감은 이곳에서 연락이 끊겼던 육촌 아우를 만났으며, 그 집 아들을 양자로 들여 자신의 대를 잇기로 했다고 알릴 참이었다.

불휘의 선택은 옳은 것일까?

<찬성 측 중심 생각> 백정은 공부를 해도 소용 없기 때문에 강 대감의 양자로 들어간 것은 잘한 것이다.

<반대 측 중심 생각> 홀로 계신 아버지를 두고, 한양으로 떠난 건 잘못되었다.



독서 후 창의융합_ ① 세상을 바꾸는 글

(1~2) 『하늘이 낳은 아이들』의 마지막에는 막순이가 쓴 <임길순전>, 떡달이가 쓴 <임걱정>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글 모두 바꿀 수 없는 세상을 글 속에서 바꾸려고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바꾸고 싶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모습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임걱정 이야기’

불휘는 비싼 값을 치르고 필사한 책을 구해 집으로 돌아왔다.

짐작대로 오래전부터 떠돌았던 백정 출신 의적, 임걱정! 그의 이야기를 엮어 낸 대담한 소설이었다.

이야기 속에서 임걱정이라는 인물은 백정이면서 영웅이었고, 의적이었다. 탐관오리 양반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과 천민을 억압하는 모든 이들을 통쾌하게 혼내주는 인물이었다. (중략)

그동안 누구도 임걱정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했다. 가장 천한 백정 출신으로 지도자가 된 그 이름, 임걱정은 조선 전체의 신분 계급을 뒤흔드는 이름이요, 양반들을 분노케 하는 이름이었다.

1. 내가 바꾸고 싶은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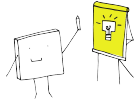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2. 내가 소설가가 된다면 그 문제를 소설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인공은 누구일까?

주인공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결론은 어떻게 될까?



독서 후 창의융합_ ② 뒷이야기 상상하기

※ 『하늘이 낳은 아이들』에 나오는 불휘는 형조 좌랑이라는 직분을 갖고, 막순이와 떡달이는 책을 쓰고, 쌍구는 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물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불휘>

과거에 합격에 형조 좌랑이 된 불휘는 정의롭게 나랏일을 한다. 그러다가

<막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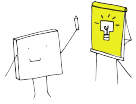
막순이가 쓴 <임길순전>은 점점 인기를 얻게 되고,

<떡달>

떡달이가 쓴 <임격정>은 점점 인기를 얻게 되고,

<쌍구>

실감나는 그림을 그리던 쌍구는



정답과 해설(예시 답안)

2쪽	1. 예) 한복을 입고 있는 걸로 봐서 우리 옛 이야기인 것 같다. 예) 아이들이 ‘ㄱ, ㄴ, ㄷ’이 적힌 것을 들고 있는데, 한글을 배우는 걸까? 예) 수업이 있는 어른은 훈장님일까? 2. 1) 천한 신분인 백정이었기 때문에 배울 수 없었다. 2) 모함을 받아 유배를 오게 되었다. 3) 예시 답안) 자신들을 무시하던 양반이 글을 가르쳐주니 처음엔 놀랐을 것 같고, 나중엔 글을 배워 책을 읽을 수 있어 좋아하고, 강 대감에게 감사했을 것 같다.
3쪽	1. 예시 답안) 1. 1) 예시답안) 공부에 관한 내용일 것 같다. 서당과, 공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2) 예시답안) ‘7. 명석서당이 열렸다’가 가장 궁금하다. 명석서당은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3) 예시답안) 아이들을 말하는 것 같다. 2. 1) 광양숯불고기 설화에서 찾았다. 2) 가이드) 지역 N 문화 포털 사이트(https://www.nculture.org/man/main.do)에 들어가면 각 지역의 설화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설화를 찾아서 읽고, 직접 말로 설화를 전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4쪽	1. 예시 답안) 예시답안) 강대감, 억울하게 귀양 가다 / 백정은 왜 늘 속아야 해? / 억울한 죽음 2. 예시 답안) 명석서당 아이들 3. 답안 생략
5쪽	1. 예시 답안) 양반에게 대들면 죽을 수도 있었다. 또 백정들의 마을에 따로 살아야 했고, 저자에서 물건을 마음대로 사지도 못했다. 사람들은 백정을 사람보다 천하게 여겼고, 죽어도 상여에 타지 못한 채 묻혀야 했다. 2. 양반 / 천민 / 강 대감, 현감 / 이방 / 불휘, 막순, 떡달, 쌍구와 가족들
6쪽	1. ㉠ 공통점 예시 답안) -둘 다 잘못된 사회에 순응하며 살지 않고, 그 사회를 바꾸려고 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했다. ㉡ 차이점 예시 답안) -길동은 신분 차별을 극복했고, 길순은 성차별을 극복하려 했다. /-길동은 결국 나라를 세웠지만, 길순은 끝내 여인임을 밝히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왔다. /-길동은 양반들을 혼내주는 일을 했고, 길순은 오랑캐와 전쟁을 했다. 2. 예시 답안) 막순이가 쓴 글이다, 막순이는 여성은 관직에 오를 수 없고, 장군도 될 수 없는 조선에 살면서 글로나마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던 것 같다.
7쪽	1. 한자 2. 언문 3. (예시답안) 양반들만 글을 알아야 백성들을 더 지배하기 쉽기 때문에. 모른다고 차별하며 불이익을 당해도 그들의 탓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4. (예시 답안) 자기가 당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하고, 자기 아래에도 누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내가 당한만큼 다른 사람에게 갚아 주어야 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하지만 조선 시대에는 계급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었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커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저런 행동이 잘못된 것인 줄 몰랐을 수도 있다.
8쪽	1. 예시 답안) 찬성 근거 : 조선 시대에는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백정인 불휘는 백정이 되어야만 했고, 이것을 벗어날 방법은 강 대감의 양자로 들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 좋은 기회를 만났을 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도 분명 불휘와 함께 사는 것보다 불휘가 성공하는 것을 바랄 것이다. 반대 근거 : 벼슬을 해야 꼭 ‘성공’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또한 성공일 수 있다. 양자로 가게 되면 백정인 것을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러 자주 올 수도 없을 것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가족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휘의 선택을 지지할 수 없다.
9쪽	1. (예시답안) 갑질 문화를 바꾸고 싶다. 얼마 전에 <친절한 백화점>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갑질

	을 당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삶이 너무 안쓰러웠기 때문이다. 2. 주인공은 누구일까? ⇨ (가이드) 연령, 성별 등 자세하게 묘사하면 좋습니다. /주인공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 (가이드) 주인공이 처해있는 상황이 잘 드러나게 씁니다. (차별 등) /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 (가이드) 임꺽정이 가난한 이들과 천민을 억압하는 이들을 혼내주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 갈등이 해결되는지를 적습니다.
10쪽	1. ⇨ (예시답안) 임금의 눈에 들게 된다. 마침 어진 임금을 만난 불휘는 백성들의 힘든 삶을 임금에게 얘기하고, 임금은 그들의 삶을 불쌍하게 여겨 차별을 금하는 법을 만든다. 2. (예시답안) 막순이는 지금의 출판사와 같은 책방을 만든다. 그곳에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여성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고, 그들의 책을 엮어 출판한다. 그 책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막순이는 부자가 되고, 다시 그 돈으로 어려운 여성을 돕는 데 쓴다. 3. (예시답안) 떡달이는 이야기의 소재를 찾아 전국을 여행한다. 그곳에서 만난 이야기를 글로 옮기며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며 세상의 지혜들을 배워나간다. 4. (예시답안) 백성들의 삶을 그린 그림이 중국 사신의 눈에 띄게 된다. 쌍구는 중국에서 인기 있는 화가가 되고, 중국에 초청을 받아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온다. 쌍구는 계속 백성들의 삶을 그리고 조선 최고의 화가가 된다.